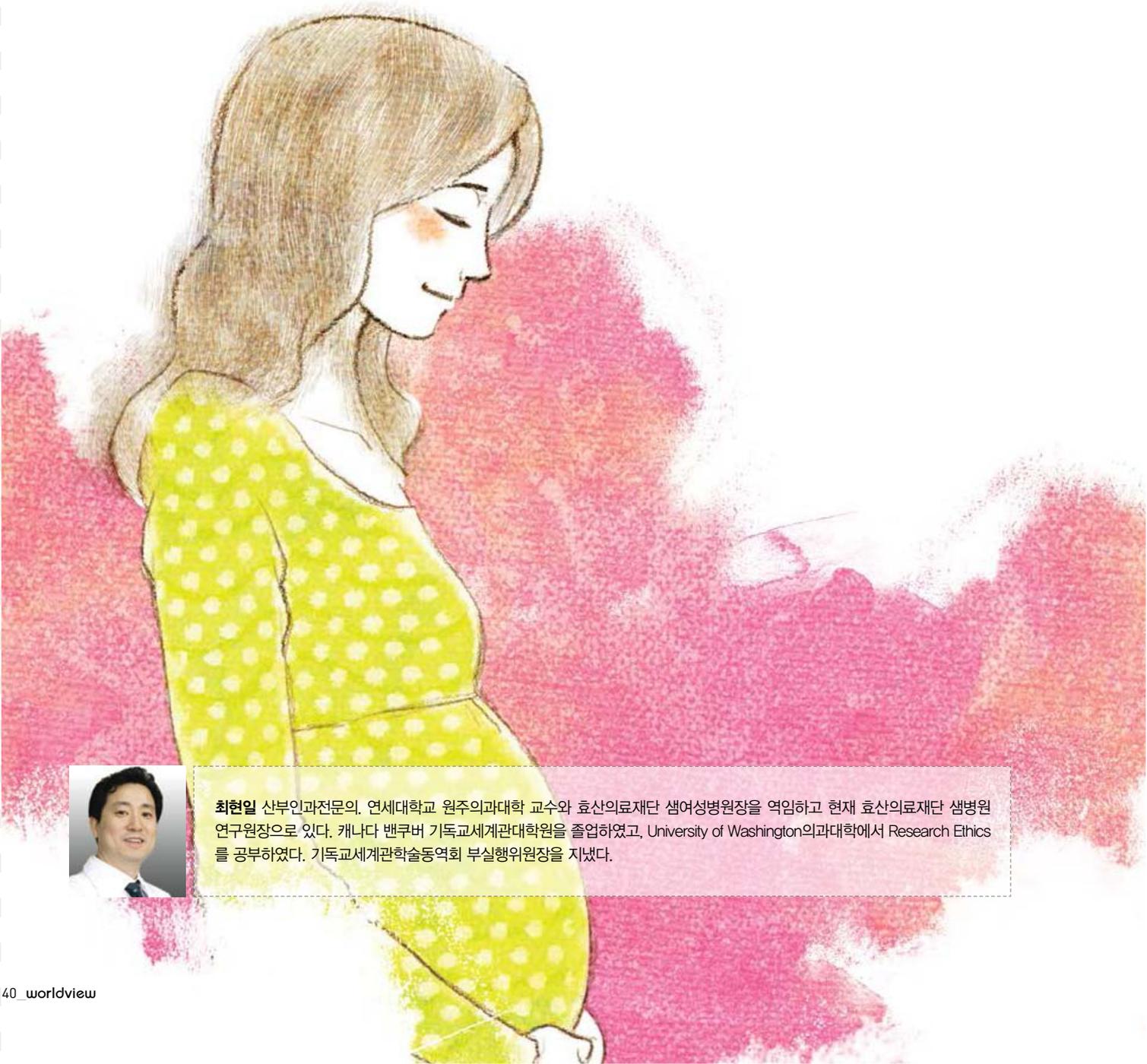


하나님만이 돌보아 주시던 시간



최현일 산부인과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 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원장을 지냈다.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을 시작합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6주예요”

“저기 초음파 영상 속에서 반짝반짝 뛰는 게 아기 심장이예요”

이런 대화가 진료실에서 울려 퍼지면, 많은 경우 기쁨과 경이, 감사의 찬사가 이어진다. 곧이어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산모의 다소 전략적(?) 방향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임신인줄 모르고 했던 여러가지 일들이 생각나면서 걱정도 되고 앞으로 엄마라는 달라진 정체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궁금해지는 것이다.

대개 임신 6주 정도면 약 4mm의 체구에 심장이 생겨서 뛰기 시작한다. 기본적인 손발의 형태도 잡히고, 모든 장기도 원초적인 세포단위로 구성된 10주경이면 몸 안의 모든 기관형성이 완성되고, 이후에는 몸 전체와 각종 장기의 크기가 증가한다. 태어날 시기가 되면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한 인간은 약 4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된 하나의 개체가 된다. 이후 성인이 되면 세포 수가 약 60조 개에 이른다.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임신기간 동안 초당 약 15만 개의 세포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다.

대개 임신진단은 임신 약 6주를 전후하여 이루어진다. 물론 이보다 빠르게 진단되는 경우도 있으나, 태아의 심장이 뛰는 것을 확인하는 시기가 되어야 비로소 확실하고 안전하게 초기 임신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초음파로 확인하는 태아의 크기는 약 2-3mm만 되어도 심장이 뛰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까지는 우리가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수정할 하나의 난자를 준비하려고, 난자를 둘러싼 수천 개의 세포들이 스스로 죽는 운명을 택해야 했다. 그



렇지 않을 경우 다낭성난포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어떤 세포들은 자기를 희생했다. 자기를 희생해서 대대를 이어가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한 건강한 정자를 선택하기 위해, 정자는 자궁경부의 늪과 같은 생물학적 조건을 통과하여, 자궁 내로 들어와 배란된 난소를 찾아가야 하는 기지를 발휘해야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천만 개의 정자 중 약 이백 개의 정자만이 하나의 난자에 도달하게 된다. 약 사백만 개의 난자 중 하나와 수천만 개의 정자 중 하나가 만나서 비로소 인간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단계까지는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수정은 자궁이 아니라 나팔관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궁외 임신 같은 질병이 생기기도 한다. 수정된 초기 인간세포들은 약 4cm의 나팔관을 따라 자궁으로 힘겹게 이동해 가야 한다. 약 일주일간의 여정을 거치는 동안 세포들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유전자적 구성을 거의 완성하며 앞으로 생겨나야 할 각종 장기들의 준비 과정과 몸의 지도를 완성해 간다. 이제는 지도에 따라 자라기만 하면 된다.

“선생님,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처럼 자신이 엄마가 된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생각해보면 임신이 진단된 시점이면 대부분의 장기들이 생겨나 있는 상태이고 심장을 비롯한 장기들이 기능을 시작하고 있는 시기이다. 이 땅에 이미 새 생명이 시작되어 유전자를 구성하고, 장기를 생성하여 심장이 뛰고 움직일 때까지, 어느 누구도 이 생명이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임신진단이 가능한 시기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즉 그 생명이 모태 내에 생겨나고 있던 초기에는 엄마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훗 불면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연약한 생명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한 시기에도 새 생명을 지켜보시며, 주관하고 있던 유일한 분이 계셨다. 이미 그 생명의 본질을 알고 계시고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신 그 분만이 여린 생명과 함께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부모조차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돌봐주시는 생애 최초의 시간을 보낸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 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다. 우리가 살아 있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흔적이다. 아무도 내가 생겨난 것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의 흔적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인 것이다. 우리 생애 최초의 시간은 하나님과 단둘만의 시간이었다.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은 우리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둘만의 소중한 시간을 거쳐서 태어나고 자라나게 된다. 혹시 우리 삶의 순간 속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만이 돌보아 주셨던 시간이 내가 이 세상에서 처음 경험하는 돌봄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